

한(漢)부터 당(唐)까지의 발해(渤海) 위치 재고(再考)

이기훈*

차 례

- I. 머리말
- II. 발해와 관련된 초기 기록
- III. BC 1세기(前漢 시기) 발해 관련 기록
- IV. 1세기~3세기 초(後漢, 三國 시기) 발해 관련 기록
- V. 3세기말~6세기(南北朝 시기) 발해 관련 기록
- VI. 7세기~9세기(隋, 唐 시기) 발해 관련 기록
- VII. 발해(渤海), 북해(北海)의 구분
- VIII. 맺음말

【국문초록】

기원전 109년 한(漢)이 고조선을 공격할 당시 제군(齊軍)이 배를 타고 건넌 발해(渤海)와, 서기 612년 수(隋)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건넌 발해(勃海)는 동일한 바다로서, 현재의 황해(黃海) 북쪽의 산둥반도(山東半島)와 요동반도(遼東半島)로 둘러싸인 바다(현 발해)가 아닌 중국 내륙의 거대한 저수지

* 인하대 박사수로, yikihoon@hanmail.net

대(瀕水地代)로 비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발해군(勃海郡)이 하북성 중남부 중산국(中山國) 근처에 있다는 『후한서(後漢書)』 기록, 발해가 터졌다는(勃海決) 『회남자(淮南子)』와 『수서(隋書)』의 기록, 해(海)가 황하(河)로 기록되기도 했다는 『사기집해(史記集解)』 기록, 발해가 일반적인 바다(大海)와 달리 홍수(大水)로 범람했던 기사를 전하는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북사(北史)』, 『수서(隋書)』 등 BC 1세기~ AD 7세기 기록들, 발해의 海(해)가 물길이 끊어지기도 했던(斷水) 澮(해)라고 주석한 『사기색은(史記索隱)』의 기록, 발해지역을 기준으로 주변이 육지였다는 사실(渤海左右郡), 고대 중원 내륙(하북성 남부 평원)에서 당(唐)시기까지도 구운소금(煮鹽)이 생산됐던 점, 발해와 관련된 한(漢)부터 당(唐)까지의 역대 사서 지명들이 대부분 황하 중하류(하북성 남부)를 중심으로 남북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사기(史記)』에 기록된 여러 바다 중 고조선을 공격한 전한(前漢) 무제(武帝) 시기에 발해(渤海)는 북해(北海)와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던 바다였다. 이렇게 ‘발해가 북해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기(史記)』 이외에도 『후한서(後漢書)』, 『진서(晉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에 발해(渤海)와 북해(北海)가 동시대에 각각 다른 바다로 등장하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대 발해(渤海)가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당시의 또 다른 바다, 즉 하북성 남부 중원 내륙의 거대한 저수지대(瀕水地代)였다면, 전한(前漢) 정권이 고조선을 치기 위해 건넌 발해(渤海)와 수(隋) 정권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건너게 했던 발해(勃澨)를 현재의 발해와 동일시하는 기존 관점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발해(渤海, 勃澨), 고조선, 고구려, 북해(北海), 왕험성(王險城)

I. 머리말

기원전 109년 가을 한(漢)은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보내 제(齊)에서 배를 타고 발해(渤海)를 건너 조선을 공격한다.¹⁾ 당시 한(漢)이 제(齊)에서 배를 띄웠던 발해(渤海)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왕험성(王險城)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북한학자 리지린은 신채호, 정인보 등의 견해를 이어, 중국 사서 『산해경(山海經)』에 등장하는 ‘북해(北海)’²⁾를 이 발해로 간주하여 고조선을 현재의 발해(황해 내해) 북쪽에 있다고 인식하였고, 윤내현은 발해의 서북쪽인 하북성 난하(灤河) 하류 유역에 위만조선 수도 왕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한(漢)이 공격했던 조선의 수도 왕험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발해(북해)를 기준으로 발해 동쪽의 평양설, 발해 북쪽의 요동설, 요서설로 나누어 논의 중에 있다.³⁾ 즉, 왕험성의 위치에 대한 주장은 각각 다르지만, 현재의 황해 내해(발해)를 한군(漢軍)이 건넌 발해로 간주하여 왕험성의 위치를 모두 현 난하(灤河) 이동(以東)에 비정한 점은 이 주장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현재 발해로 불리는 황해 내해 이외의 또 다른 바다가 고대 중원 내륙에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⁴⁾ 만일 고대

1) 『史記』卷115 朝鮮列傳 “元封二年(B.C.109)…天子募罪人擊朝鮮。其秋，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2) 『山海經』第18 海內經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

3) 박성용,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위치 고찰」, 『한국 상고사의 쟁점 - 왕검성과 한군현』, 2016, 68~69쪽.

4) (1) 『史記』「朝鮮列傳」에 나오는 ‘발해(渤海)’에 대하여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申采浩의 『朝鮮上古史』, 『山海經』, 『史記』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주석 설명하고 있다. “渤海는 기원전 3~2세기 이전부터 渤海로 불리워 왔다. 즉, 기원전 5~3세기의 기록으로 이해되는 『山海經』 「海內東經」에 ‘遼水出衛皋東 東南注渤海 入遼陽’ (東南至遼陽注渤海로 읽어야 될 듯 하다)로 나타나고 있고, 『史記』 「河渠書」의 黃河가 渤海로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볼 때 기원전 3~2세기 이래로 渤海는 변함없이 渤海로 불려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渤海는 遼東半島와 山東半島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渤海灣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위 설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요수(遼水)와 황하(黃河)가 발해로 들어간다는 내용을 근거로 당시 발해

발해가 현재의 황해 내해(발해)가 아니라면 상기 연구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일부 학자는 한(漢) 당시 발해가 현재의 발해(황해 내해)가 아닌 황하 중·하류의 중국 내륙에 있었던 바다로 주장하고 있다. 김진경은 발해(勃海)가 있던 발해군(勃海郡)을 산서성 남부 태항산맥(太行山脈) 인근으로 비정하였는데, 이는 연(燕)의 후기 수도 계(薊)를 태항산맥 서쪽 현 산서성 장치시(長治市) 둔유구(屯留區)로 보고 그 남쪽 능천현(陵川縣) 인근을 발해(勃

를 현재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로 둘러싸인 바다로 비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기 “遼水出衛奉東 東南注渤海(요수가 위고(衛奉) 동쪽에서 나와 나와 동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물을 댄다.)”라는 『山海經』 「海內東經」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요수(遼水)가 현재 요하처럼 ‘서남쪽’으로 흘러 발해에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남쪽’으로 발해에 유입된다고 기록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山海經』의 요수가 현재 요하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요수(遼水)의 위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역대 기록을 보면 後漢 이전, 北魏 시기 요수(遼水, 遼水)는 현재의 요녕성에 있는 요하(遼河)처럼 서남으로 흐르지 않고 ‘동쪽으로 곧게 흐르다가’, 요동의 서남쪽(또는 요동 망평현)에 이르러 ‘바다(海)’로 들어갔던 중원 내륙의 강이었음을 다음 기록들로 확인할 수 있다. 『呂氏春秋』(四庫全書) 卷十三(後漢 高誘 注) “遼水出砥石山, 自塞北東流直, 至遼東之西南入海.” 『淮南鴻烈解』(四庫全書) 卷七(後漢 高誘 注) “遼水出砥石山, 自塞北東流直, 遼東之西南入海.” 『水經注』(四庫全書) 卷十四(北魏 酈道元 著) “大遼水出塞外, 衛白平山東南入塞, 過遼東襄平縣西, 遼水亦言出砥石山, …自塞外東流直, 遼東之望平縣西.” 그런데, 후한 당시 요수가 유입되던 요동 지역이 현재처럼 바다(현 발해)와 접하지 않고 하북성 중남부 태항산맥 동쪽 내륙에 있었던 사실은 연구자의 기존 논문 「평양과 발해만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동아시아고대학 72, 2013)」에서 밝힌 바 있다. 요수가 이렇게 중원 내륙 요동(하북성 중남부)에 이르는 강이었다면 요수가 유입되던 바다(海)는 현재의 발해가 아닌 중원 내륙의 요동 인근 거대한 저지대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2) 2018년 이덕일이 해역한 리지린의 『고조선연구』 중 발해(渤海)와 관련하여 리지린은 현재의 발해를 고대 북해(北海)와 동일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산해경·해내 북경』에 의하면 조선이 북해(北海)의 연안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북해(北海)’란 것은 황해가 아니고 ‘발해(渤海)’인 것이다.(68쪽)”, “중국 고대 역사 상에서 3신산이 있는 발해는 바로 오늘의 발해이며 이에 대하여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다. 『전국책·제책』에는 제나라 북쪽에 발해가 있다(齊北有渤海)”라고 씌어 있는 바 이 발해는 물론 오늘의 발해인 것이다.(73쪽)”

리지린의 이러한 주장의 문제는, 그가 주장한 ‘현재의 발해가 고대 북해(北海)이자 고대의 발해와 현재 발해가 같은 바다’라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다. 리지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북쪽의 발해’를 현재의 발해로 간주하고 있으나 현재의 발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그가 언급한 『전국책·제책』 기록을 살펴보면 제나라는 동쪽으로 낭야(琅邪), 남쪽에 태산(泰山), 서쪽의 탁하(濁河, 『史記』에는 ‘清河’), 북쪽으로 발해(勃海)에 둘러싸여 있다고 기록돼 있는데(蘇秦為趙合從, 說齊宣王曰, 齊南有太山, 東有琅邪, 西有清河, 北有渤海, 此所謂四塞之國也), 그렇다면 제나라 북쪽에 있다는 바다 발해는 동쪽의 낭야(琅邪)와 서쪽의 탁하(濁河, 清河) 사이의 북쪽에 있던 바다로서, 서쪽 탁하(濁河, 清河)는 현재 하북성 남부 청하현(清河縣)으로 비정되므로(〈그림 05〉 참조), 제나라 북쪽의 발해는 반드시 현재 산둥반도 북부의 바다 발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하북성 청하현 북쪽의 중원 내륙해였을 가능성도 있다.

海)로 추정한 것이다.⁵⁾ 이진우는 태항산맥에서 발원하는 탁장하(濁漳河) 및 청장하(淸漳河)가 동류(東流)하여 발해에 주입되며 심수(沁水), 요수(遼水), 호타하(滹沱河) 등이 발해로 유입되었던 사실과, 발해가 거록택(鉅鹿澤)과 연결되어 이후 황하로 흘러 들어갔던 사실을 토대로, 이 수계들이 모여 거대한 호수가 형성된 현 산동성 대야택(大野澤)을 발해로 고찰하였다.⁶⁾ 이러한 김진경과 이진우의 발해 위치에 관한 연구는 고대 발해를 현재의 발해와 동일시 하던 기존 연구를 탈피하여 사서(史書)와 관련 지명을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성과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자는 상기 발해에 대한 관점들 중 고대 발해가 현재의 황해 북부 내해가 아닌 중원 내륙에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 위치는 675년 당(唐)나라 이현(李賢)이 『후한서(後漢書)』에 주석한 대로 현 하북성(河北省) 중남부로서, 낙양(雒陽)에서 북쪽으로 하간국(河間國; 현 하북성 중남부 헌현(獻縣)⁷⁾)까지 거리인 2,500리보다 900리 남쪽에 있었고, 고대 중산국(中山國)으로 비정되는 하북성 중남부⁸⁾와 불과 200리 떨어져 있는 중원 내륙의 광활한 저지대가 발해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後漢書』 「志·郡國」

中山國雒陽北一千四百里. 渤海郡雒陽北千六百里. 河間國雒陽北二千五百里.

(중산국은 낙양 북쪽으로 1,400리에 있다. 발해군은 낙양 북쪽으로 1,600리에 있다. 하간국은 낙양에서 북쪽으로 2,500리에 있다.)

5) 김진경, 「갈석산(碣石山)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5, 2013, 346쪽.

6) 이진우, 「부여의 개국시기와 도읍지 위치에 관한 연구」, 『고조선 연구』 4, 2015, 23-24쪽.

7) 『詞典網』 河間郡 “西漢高祖九年(前198年)置, 治樂城縣(今河北獻縣東南). 景帝二年(前155年)復改河間郡為國. 其後或郡或國.”

8) 臧勵齋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1399쪽. “靈壽縣: 戰國時中山國地…故城在今靈壽縣西北十里 今名寧壽村(전국시대 중산국 땅인 靈壽縣은 현재 하북성 서남부, 태항산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하북성 石家莊市에 속해 있다.)”

상기 당나라 이현(李賢)이 밝힌 대로 고대 중산국(中山國) 인근 즉, 현재 하북성 중남부에 발해군이 있었다면, 그 인근에 발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군명(郡名)이 발해군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일 현재의 발해를 고대 발해라고 본다면 이현(李賢)이 『후한서(後漢書)』에서 말한 하북성 중남부(中山國 인근) 발해군 지역과 현재의 발해가 상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⁹⁾ 하북성 중남부를 발해군으로 명명(命名)할 만한 연고(緣故)가 부족하게 된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한(漢)나라 시기부터 당(唐)나라 시기까지 발해(渤海)는 북해(北海)와 동시대에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에, 고대 중산국 인근에 발해가 있었다면 현재의 발해는 고대 발해와 다른 북해(北海)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이현(李賢)이 말한 ‘중산국 인근 발해군’의 북쪽, 즉 현 하북성 중부 이북지역이 진(秦)·한(漢) 당시에도 중국의 영역이었는지에 관해서도 더 많은 고찰이 요구된다. 진(秦) 당시 흉노와 예맥조선의 경계였던 상곡(上谷)¹¹⁾을 중국에서 현재 하북성 중남부인 보정시(保定市)¹²⁾ 또는 하북성 중북부 장가구시(張家口市)¹³⁾로 비정하고 있고, 진(秦)장성의 종점인 요동(遼東)의 기준이 되

9) 天津市 앞바다(현 발해)부터 고대 중산국이 있던 靈壽縣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80Km로, 서울에서 경상북도 포항까지의 직선거리와 비슷한 거리이다.

10) (1) 『舊唐書』卷三十六, 天文下 “又得漢之北海, 千乘, 淄川, 濟南, 齊郡, 及平原, 渤海.”
(2) 『新唐書』卷三十八, 地理二 “河南道: 齊, 山陽, 東海, 琅邪, 北海, … 暨平原, 渤海, 九江之境.”
(3) 상세 내용은 본고 ‘Ⅶ. 발해(渤海), 북해(北海)의 구분’ 참고.

11) 『史記』「匈奴列傳」 “冒頓既立(B.C.209), 是時東胡彊盛…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以往者, 東接穢貉朝鮮(흉노 모둔선우 즉위 시 동호가 강성했다. 모든 좌왕들은 동쪽에 거했는데 상곡까지(以往者)를 다스렸으며, (상곡에서) 동쪽으로 예맥조선과 접경했다.)”

12) (1) 臧勵齋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42쪽. “秦滅代, 置上谷郡. 舊保定, 易州, 宣化, 及順天, 河間之一部(秦이 대를 멸하고 상곡군을 설치하는데 옛 보정이다. 역주, 선화, 순천, 하간(河間, 황하하류유역)의 일부이다)”
(2) 秦惠田(淸), 『五禮通考』第27部分 “易州亦為上谷郡今保定府(역주는 상곡군이기도 한데, 현 보정부이다)”

13)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上谷郡 “今河北省張家口市懷來縣”, (2023.11.03.접속)

는 요주(遼州)가 이 상곡 남부인 하북성 진중시(晉中市) 좌권현(左權縣)에 근대까지(1912년) 있었으며, 여러 고대 문헌에 진한(秦漢) 당시 진(秦)장성이 이르렀다는 요동(遼東)이 이 요주(遼州) 동쪽인 하북성 중남부로 비정되고,¹⁴⁾ 진시황 당시 황하 상류(河套지역) 북쪽과 동쪽에는 흉노(匈奴)와 동호(東胡), 예맥조선이 건재하였던 사실은,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동쪽으로 현 하북성 동쪽(북경 동쪽) 바다 ‘발해’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진시황이 건넌다는 바다 ‘발해’ 역시 현재의 진황도시(秦皇島市) 인근의 황해 내해(현 발해)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¹⁵⁾ 즉, 진(秦)을 이은 한(漢)이 기원전 109년 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건넌 바다 발해가 진(秦) 당시 흉노와 예맥조선이 경계로 하고 있던 ‘상곡(보정시, 장가구시)’을 넘지 못하고 그 이남인 하북성 중남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렇게 하북성 중남부 내륙(중산국 인근)에 있었다는 발해(발해군)가 고조선과 전쟁을 하던 기원전 2세기 전한(前漢) 당시 뿐 아니라 후한(後漢), 삼국(三國), 남북조(南北朝)시기를 거쳐 고구려와 전쟁을 하던 7세기 수(隋), 당(唐)시기까지도 위치상 큰 변화 없이 중원 내륙(하북성 중남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14) 이기훈, 2023.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東아시아古代學』 72, 109~150쪽.

15) 앞의 논문 이기훈, 2023. 참조.

Ⅱ. 발해와 관련된 초기 기록

한대(漢代) 이전 이른 시기(BC 3세기 이전)의 발해(渤海)가 기록된 『회남자(淮南子)』의 후한(後漢)시기 주석서인 『회남홍렬해(淮南鴻烈解)』¹⁶⁾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淮南鴻烈解』(四庫全書) 卷五

賁星墜而勃海決(賁星客星也又作孛星, 墜隕也勃大也決溢也)

(분성이 떨어져 발해가 터졌다(분성은 객성이다. 패성(혜성)이라고도 한다.

운석이 떨어지는 것이다. 발(勃)은 크다는 뜻이고, 결(決)은 넘친다(溢)는 뜻이다.).)

이 기록은 전한(前漢)이 BC 109년 고조선을 공격하기 이전 발해가 현재의 황해 북쪽 바다가 아니라 운석에 의해 독이 터질 수 있는 하수(河水) 또는 호수(湖水)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해가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내륙의 하수(河水) 혹은 호수(湖水)였음은 『산해경(山海經)』, 『상서(尚書)』, 『사기(史記)』 등 기원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 『산해경(山海經)』

전국(戰國)시대 말기에서 전한(前漢) 시기에 교정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초 지리서 『산해경(山海經)』 내용을 보면 발해(渤海)가 현 중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의 내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에는 황하(河)로 유입되는 강들과 발해(渤海)로 유입되는 강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6) 후한(後漢)시기 허신(許慎)과 고유(高誘)가 주해(註解)하였다.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

洛水出上洛西山, 東北注河, 入成皋西. 汾水出上窳北, 而西南注河, 入皮氏南. 沁水出井陘山東, 東南注河, 入懷東南. 濟水出共山南東丘, 絕鉅鹿澤, 注渤海, 入齊琅槐東北. 遼水出衛皋東, 東南注渤海, 入瀋陽. 厚沱水出晉陽城南而西至陽曲北, 而東注渤海, 入章武北. 漳水出山陽東, 東注渤海, 入章武南.

(洛水是 洛西山에서 나와, 동북으로 황하에 유입된 뒤, 成皋의 西쪽으로 들어간다. 汾水是 上窳의 北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황하에 유입된 뒤, 皮氏의 南쪽으로 들어간다. 沁水是 井陘山의 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황하에 유입된 뒤, 懷東의 南쪽으로 들어간다. 濟水是 共山의 南東 언덕에서 나와, 鉅鹿澤을 끊고, 발해에 유입된 뒤, 齊의 琅槐 땅 東北으로 들어간다. 遼水是 衛皋의 東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발해에 유입된 뒤, 瀋陽으로 들어간다. 厚沱水是 晉陽城 南쪽에서 나와 서쪽으로 陽曲의 북쪽에 이르며, 동쪽으로 발해에 유입된 뒤, 章武 땅 北쪽으로 들어간다. 漳水是 山陽의 동쪽에서 나와, 동쪽으로 발해에 유입되며, 章武 땅 南쪽으로 들어간다.)

상기 『산해경(山海經)』에 따르면 발해로 유입되는 네 개의 강들(濟水, 遼水, 厚沱水, 漳水)이 발해로 유입된(注) 뒤에 바로 바다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각각 낭괴(琅槐), 요양(瀋陽), 장무 북(章武北), 장무 남(章武南)으로 들어가는(入)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대 발해가 현재 중원 강들의 종점인 황해 내해(현 발해)가 아니라, 중원에서 상기 네 개의 강을 받아들인 뒤(注) 다시 동쪽의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入) 중간 지점의 거대한 내륙의 저지대(호수)와 같은 곳을 말하고 있다.¹⁷⁾

17) 상기 『회남자(淮南子)』 내용과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의 발해 관련 내용은 이진우, 2015, 앞의 논문, 23-24쪽을 참조함.

2. 『상서(尙書)』와 『사기(史記)』의 ‘河’ 와 ‘海’

전국시대 말기(기원전 3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서(尙書)』의 내용을 다시 기록한 『사기(史記)』 「하본기(夏本紀)」를 보면, ‘도이(島夷, 鳥夷) 사람들이 갈석(碣石)을 지나 들어가는 곳’ 이 원문인 『상서(尙書)』 「우공(禹貢)」의 황하(河)와 달리 바다(海)로 기록돼 있다.

『상서(尙書)』 「우공(禹貢)」 : “島夷皮服, 夾右碣石入於河.”

『사기(史記)』 「하본기(夏本紀)」 : “島夷皮服, 夾右碣石入于海.”

이 사실은 황하를 의미하는 ‘河’ 와 바다를 의미하는 ‘海’ 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 동진(東晉)의 서광(徐廣, 352~425)이 『사기집해(史記集解)』에 “바다(海)는 황하(河)로 기록하기도 한다(海一作河)”라고 한 말은 ‘황하(河)’가 어떤 기록에는 ‘바다(海)’로 표현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황하(河)’가 ‘바다(海)’로 바뀌어 기록되기도 했던 이유는 갈석산(碣石山)이 황하에서 바다로 이주 됐다기보다는, 갈석산 인근에 있던 큰물(大水)을 황하(河) 또는 바다(海)로 불렀을 가능성을 말한다. 즉, 황하, 그리고 황하와 연결돼 있던 발해가 현재처럼 명확히 ‘강(河)’과 ‘바다(大海)’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갈석산 인근 지역에 있던 큰물(大水)을 일컫는 유사한 개념의 강 또는 호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海(해)가 발해지역(勃海地)의 큰물(大水)로 사용된 예

河(하)가 일반적인 강을 의미하면서 ‘황하’를 의미하듯이, 海(해)가 ‘황하’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바다 이외에도 중원 내륙 ‘발해지역(勃海地)의 큰물(大水)’로 사용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서(漢書)』 「구혁지(溝洫志)」

大司空掾王橫言：河入勃海，勃海地高於韓牧所欲穿處。往者天嘗連雨，東北風，海水溢，西南出，漫數百里，九河之地已為海所漸矣。

(대사공 연(대사공을 보좌하는 관리) 왕횡이 말하였다. “황하가 발해(勃海)로 들어가는데, 발해의 땅은 한목(韓牧：臨淮출신 御史)이 뚫고 가려는 곳보다 높습니다. 이전에 날씨(天)가 계속 비가 내리고 동북풍이 불어서, 해수(海水)가 넘쳐 서남쪽으로 물이 나갔는데, 수백 리를 침수시켜 구하(九河)의 땅이 이미 해(海)에 잠겨 버렸습니다.”)

『후한서(後漢書)』 「환제기(桓帝紀)」

六州大水，勃海溢。(여섯개 州에 홍수(大水)가 나고, 발해의 해(海)가 넘쳤다.)

두 기사 중 위의 『한서(漢書)』 「구혁지(溝洫志)」 기사를 보면 황하가 유입되는 발해지역(勃海地)은 임회(臨淮)지역 출신 어사(御史) 한목(韓牧)이 뚫고 가려는 곳보다 높은 지대에 있던 곳으로서, ‘계속된 비(連雨)와 바람으로 인해 해수(海水)가 수백 리 넘쳤던’ 지역 인근이 발해의 땅(勃海地)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는 고대 발해가 있던 지역(勃海地)이 현재의 큰 바다(大海) 발해와 관련이 없는 내륙의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발해가 넘쳤을 때 흘렀던 물을 ‘발해수(勃海水)’가 아닌 단지 ‘해수(海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발해지역의 물(勃海)’을 줄여서 해(海)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해(海)’가 일반적인 큰 바다(大海)뿐 아니라 ‘발해지역(勃海地)’의 큰물(大水)도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두 기사 중 아래 기사인 『후한서(後漢書)』 「환제기(桓帝紀)」의

‘해(海)’는 일반적인 대해(大海)와 달리 6주(州)에 홍수가 날 정도로 큰비가 내려 더이상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쳤던 ‘발해(勃海)의 물(海)’을 의미한다. 여섯 주(州)의 홍수(大水)로 인해 ‘해(海)’가 넘쳤다는 의미는, 이 기록의 ‘해(海)’가 비가 와도 수위가 일정한 현재의 바다(大海)가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릴 때 넘치는 내륙의 ‘발해지역(勃海地) 물(海)’을 가리킨다. 즉, ‘발해’라는 내륙의 일정한 지역의 바닷물(海)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해(海)는 반드시 현재의 대해(大海)인 발해를 의미하지 않고 황하(河)와 서로 연결돼 있는 내륙의 큰물(大水)이기 때문에, 서로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워 서광(徐廣)이 “바다(海)는 황하(河)로 기록하기도 한다(海一作河)”라고 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해(海)’가 내륙해가 아니라 대해(大海)인 ‘황해’ 또는 ‘현 발해’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예로 다음 기록을 들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 「효영제기(孝靈帝紀)」

六月, 北海地震. 東萊, 北海海水溢.

(6월에 북해군에 지진이 일어났다. 동래군, 북해군의 해수가 넘쳤다)

이 기록은 북해군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사실과 동래군, 북해군의 해수가 넘친 사실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해군의 지진으로 인해 현 발해 연안에 해일(海溢)이 일어나 동래군과 북해군의 바다가 넘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해(海)’는 해일이 일어난 동래군, 북해군 인근의 대해(大海)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 이외에 상기 『한서(漢書)』 「구혁지(溝洫志)」, 『후한서(後漢書)』 「환제기(桓帝紀)」 기록과 같이 ‘계속된 비(連雨)’ 또는 ‘큰비(大水)’에 의해 해(海)가 넘친 기록들이 있다

는 사실은 ‘해(海)’가 비(雨)가 와도 넘치지 않는 현 황해와 같은 대해(大海)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기 『한서(漢書)』 「구혁지(溝洫志)」에서 “連雨…海水溢… 數百里(계속 비가 내리고…해수(海水)가 넘쳐… 수백 리를 침수시켰다)”는 기록, 그리고 『수서(隋書)』 「형법(刑法)」에서 “夫勃澥之浸, 沾濡千里(무릇 발해가 침수하여 천 리가 (물에) 젖었다).”라는 기록 등은 발해(勃海, 勃澥)가 한(漢)나라 당시에 ‘수백 리’, 수나라(隋, 581-619) 당시 ‘천 리’의 광활한 땅을 침수시킨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광대한 침수 현상은 해안가의 지진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해일(海溢)’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기록의 해(海)는 현재의 대해(大海)에서 일어나는 해일과 관련이 없는 내륙의 거대한 물(海)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Ⅲ. BC 1세기(前漢 시기) 발해 관련 기록

1. 해(海)는 해(澥)로서 물길이 끊어지는(斷水) 바다를 의미

渤海(발해)는 勃海(발해), 渤澥(발해) 등으로도 기록되는데, 이러한 호칭은 『史記』가 기록된 전한(前漢)시기부터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즉, 渤는 勃로, 海는 澥로 서로 바꾸어 사용되는데, 다음의 기록을 보면 ‘海(해)’의 의미가 ‘물이 끊어진다(斷水)’는 의미의 ‘澥(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渤海(발해)’가 현재처럼 대해(大海)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저기 물(水)이 풀어져(解) 물길이 끊어지기도 하는, 물(水)이 빈번히(每) 퍼져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18) 한국 포털사이트 한자사전(hanja.dict.naver.com)에는 ‘澥’의 의미를 ‘바다의 이름. 끊어진 수류(水流), 작은 시내’로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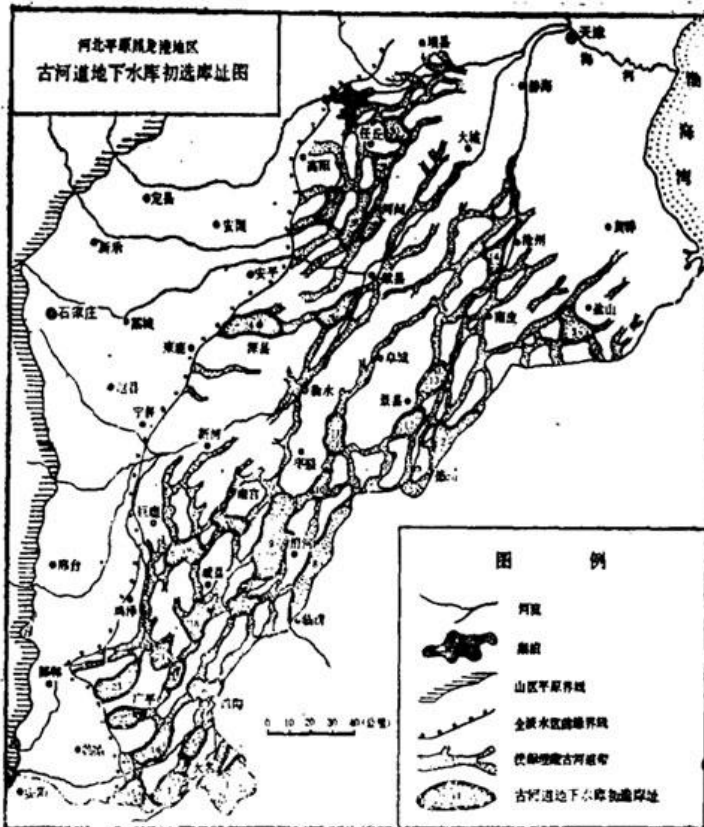
『史記』 「司馬相如列傳」

且齊東陞巨海, 南有琅邪, 觀乎成山, 射乎之罘, 浮勃澥, [集解漢書音義曰: 海別枝名也。][索隱案: 齊都賦云海傍曰勃, 斷水曰澥也。]

(또한 제나라는 동쪽으로는 거해(巨海)가 있고 남쪽으로는 낭야산(琅邪山)이 있다. 성산(成山)에서 유람하고 지부산(之罘山)에서 활을 쏘며, 발해(渤海)에서 배를 띄운다(집해: 한서 음의에 해(澥)는 해(海)의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색은: 제도부(齊都賦)에서 말하길 해(海) 옆을 발(勃)이라고 하고 물이 끊어짐(斷水)을 해(澥)라고 한다))

상기 기록을 보면 전한(前漢) 시기에 제(齊)나라 동쪽에는 거해(巨海)가 있고, 북쪽에는 거해와 구분되는 발해(勃澥)가 있었음¹⁹⁾을 알 수 있다. 이 제나라 북쪽에 있었던 勃澥(발해)의 ‘澥(해)’에 대하여 『집해(集解)』에는 ‘海(해)의 또 다른 이름(別枝名)’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색은(索隱)』에는 ‘澥(해)’의 의미가 ‘물이 끊어짐(斷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勃海(발해), 즉, 勃澥(발해)의 海(해)가 곧 澥(해)로서, 물이 끊기지 않는 대해(大海, 황해)와 달리 물이 자주 끊기는 내륙 지역에 발해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19) 『史記』本紀 凡十二卷 高祖本紀 “夫齊, 東有琅邪, 即墨之饒, 南有泰山之固, 西有濁河之限, 北有勃海之利.”



〈그림 01〉 고하도지하수고초선고지도(古河道地下水庫初選庫址圖).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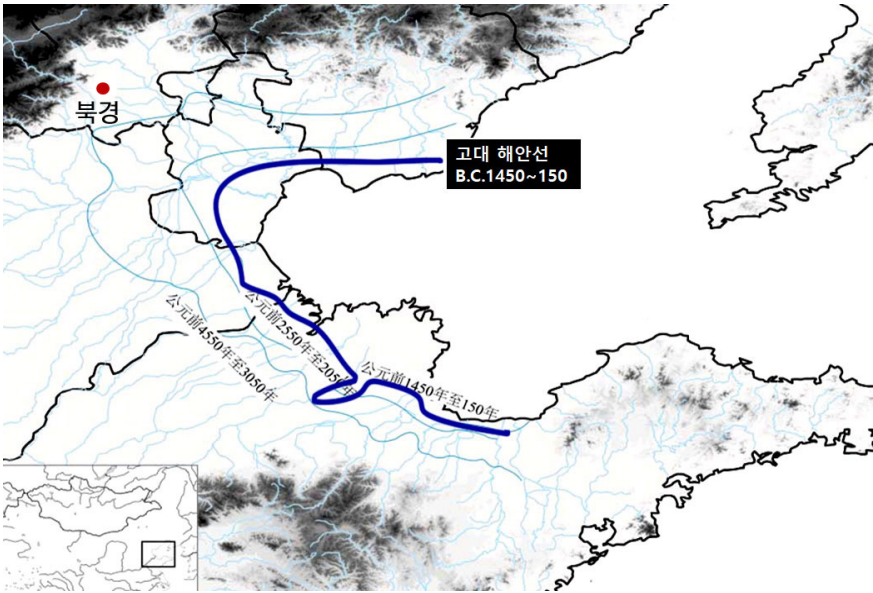
하북성(河北省) 경내 하북평원(河北平原)의 고대 황하(河) 물줄기들을 따라 거대한 지하수고(地下水庫)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右上에서 古河道가 현 발해만 서쪽 내륙 깊은 곳에서 끊어지는 현상은 고대 황하가 바다에 유입된 지점이 현재의 해안선이 아니라 현재보다 상당히 서쪽 내륙으로 들어와 있었음을 말한다. 이는 현재 하북성의 메마른 지역이 고대 해수면(그림 右上 古河道가 끊어지는 지역)이 높아 해안선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왔을 당시 중원 내륙에 거대한 내륙호수 또는 강이 산재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古河道를 따라 형성된 지하 물줄기들이 서로 그물처럼 이어지거나 끊어진 것을 통해 海의 다른 이름(別枝名)인 澮(해)가 단수(斷水)라고 기록한 『索隱』의 내용과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20) 吳金祥: 吳忱, 「關於河北平原黑龍港地區利用古河道建設地下水庫的探討」, 『海河水利』, 1985, 44쪽.



〈그림 02〉²¹⁾ (좌)흑룡항지리위치시도의(黑龍港地理位置示意圖), 우)흑룡항지구역사시기황장호당등하류침적범위시도의(黑龍港地區歷史時期黃漳滹唐等河流沈積範圍示意圖). 하북성 남부(北京 이남)에 역사시기(歷史時期) 황하(黃河), 장하(漳河), 호타하(滹沱河), 당하(唐河) 등의 강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거대한 침적지대의 범위가 표시돼 있다. 고대에 이 지역이 주변의 여러 하수가 모이는 방대한 저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21) 河北省地理研究所編繪, 『河北平原黑龍港地區古河道圖』, 『河北平原黑龍港地區古河道圖』及《說明書》1:200000, 吉林省地理研究所印制, 1977.



〈그림 03〉²²⁾ 기원전 15세기부터 한(漢) 시기까지(B.C.1450 ~ 150) 중국 해안선.

고대 중국대륙은 해안선이 현재보다 내륙으로 수십 킬로미터 안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수면이 지금보다 높았다면 고대 중원 내륙의 고도가 낮은 저지대 역시 물에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발해는 좌·우군(左右郡) 사이의 바다

이렇게 발해(渤海)가 전한(前漢) 시기 중국 내지에 있었음은 전한부터 신(新)국까지(BC 206~24) 역사를 기록한 『한서(漢書)』의 다음 기록으로도 확인된다.

22) Pauline SEBILLAUD(史寶琳), 「中原地區公元前三千紀下半葉和公元前兩千紀的聚落分佈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437(부록77)쪽.

『漢書』 「循吏傳」

宣帝即位, 久之, 渤海左右郡歲飢, 盜賊並起, 二千石不能禽制.

(선제가 즉위한 뒤 한참 뒤에 발해의 좌우군에 몇 년간 기근이 들어 도적이
한꺼번에 일어나니, 2천 석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

상기 기록은 한(漢)이 제(齊) 지역에서 발해(渤海)를 건너 고조선을 공격한 BC109년 이후, 선제(宣帝)가 즉위(BC 91년)했을 당시의 기사로, 당시 발해(渤海)의 좌·우군(渤海左右郡)에 큰 기근이 들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의 발해 좌·우군(渤海左右郡)이란 발해를 기준으로 동쪽(左)과 서쪽(右)에 군(郡)들을 말하는데, 이는 전한(前漢)이 제(齊)에서 고조선을 공격할 때 건넌 발해(渤海) 동서에 군(郡)이 있었다는 의미로, 발해 주변을 육지가 둘러싸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발해의 좌·우군(渤海左右郡)을 ‘동서(東西)’가 아니라 발해 ‘주변’의 군으로 해석하여 현재 발해 인근에 있었던 여러 군(郡)들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같은 『漢書』의 「趙尹韓張兩王傳」 기록에 “듣건대 교동과 발해 좌우(주변)의 군에 해마다 기근이 들어, 도적이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伏聞, 膠東勃海左右郡, 歲數不登, 盜賊並起).”라는 내용을 보면, 발해가 산둥(山東)지역을 의미하는 ‘교동(膠東)’과 가까이 있는, 교동(膠東)과 함께 가뭄이 들고 도적이 들끓던 특정 지역(발해군 지역)임을 의미하고 있다. 즉, ‘교동과 발해 주변의 군(膠東勃海左右郡)’들이 현재의 산둥반도(교동)와 가까운 곳이어야 하는데, 현 발해를 기준으로 좌우의 여러 군들(주변의 여러 군들)로 볼 수 있는 요서 지역이나 요동 지역은 그 지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산둥지역과는 바다로 떨어져 있고 기후 차이가 나는 곳이므로, 산둥지역과 함께 가뭄이 들고 도둑이 들끓던 지역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

3. 발해(渤海)가 넘친 기록들

이렇게 중원 내륙의 산둥(山東) 근처에 있던 바다인 발해는 바다처럼 수위가 일정하지 않고 전한(前漢) 당시 물이 넘쳐 큰 수해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한(前漢) 시기 발해가 큰 바다(대해)가 아니라 내륙에 있던 큰물이 모여 있던 내륙의 호수나 큰 강과 같은 곳이었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증거이다. 아래 <표 01>은 전한(前漢) 시기 발해가 여러 차례 범람했음을 전하는 기록들이다.

「천문지(天文志)」	元帝初元元年(BC 48년)… 其五月, 勃海水大溢. 六月, 關東大飢. 民多餓死. 琅邪郡人相食. (《BC 48년》 그 오월에 발해의 물이 크게 넘쳤다. 6월에 관동에 대 기근이 발생하여 많은 백성이 아사하고 낭야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제류오기(帝劉紀)」	(鴻嘉四年, BC 17년) 秋, 勃海, 清河河溢, 被災者振貸之. (《BC 17년》 가을에 발해, 청하의 하수가 넘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휼하였다.)
「구혈지(溝洫志)」	是歲, 勃海, 清河, 信都河水溢, 灌縣邑三十一, 敗官亭民舍四萬餘所. (당시 발해, 청하, 신도의 하수가 크게 넘쳐 31개 현과 읍에 흘러들어 관정과 민가 4만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大司空掾王橫言：河入勃海, 勃海地高於韓牧所欲穿處, 往者天嘗連雨, 東北風, 海水溢, 西南出, 數百里, 九河之地已為海所漸矣. (대사공 연(대사공을 보좌하는 관리) 왕횡이 말하였다. “황하가 발해(渤海)로 들어가는데, 발해의 땅은 한목(韓牧)이 뚫고 가려는 곳보다 높습니다. 이전에 날씨(天)가 계속 비가 내리고 동북풍이 불어서, 해수(海水)가 넘쳐 서남쪽으로 물이 나갔는데, 수백리를 침수시켜 구하(九河)의 땅이 이미 해(海)에 잠겨 버렸습니다.”)

<표 01> 전한(前漢) 시기 발해(渤海)가 넘친 사실을 전하는 『한서(漢書)』 기록

4. 발해(勃海) 인근의 지명들

이렇게 전한(前漢) 당시 하수(河水)가 넘쳐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발해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한서(漢書)』의 기록들 중 발해 인근의 지명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本紀, 卷六武帝劉徹紀	三年春, 河水徙, 從頓丘東南流入勃海。師古曰: 頓丘, 丘名, 因以為縣, 本衛地也。地理志屬東郡, 今則在魏州界也。
本紀, 卷十成帝劉騫紀	秋, 勃海, 清河河溢, 被災者振貸之。
志, 卷二十八下地理志	齊地, 虛, 危之分壑也。東有甾川, 東萊, 琅邪, 高密, 膠東, 南有泰山, 城陽, 北有千乘, 清河以南, 勃海之高樂, 高城, 重合, 陽信, 西有濟南, 平原, 皆齊分也。
志, 卷二十九溝洫志	自塞宣房後, 河復北決於館陶, 分為屯氏河, 東北經魏郡, 清河, 信都, 勃海入海, 廣深與大河等, 故因其自然, 不隄塞也。
列傳, 卷七十四魏相丙吉傳	元鼎二年, 平原, 勃海, 太山, 東郡溥被災, 民餓死於道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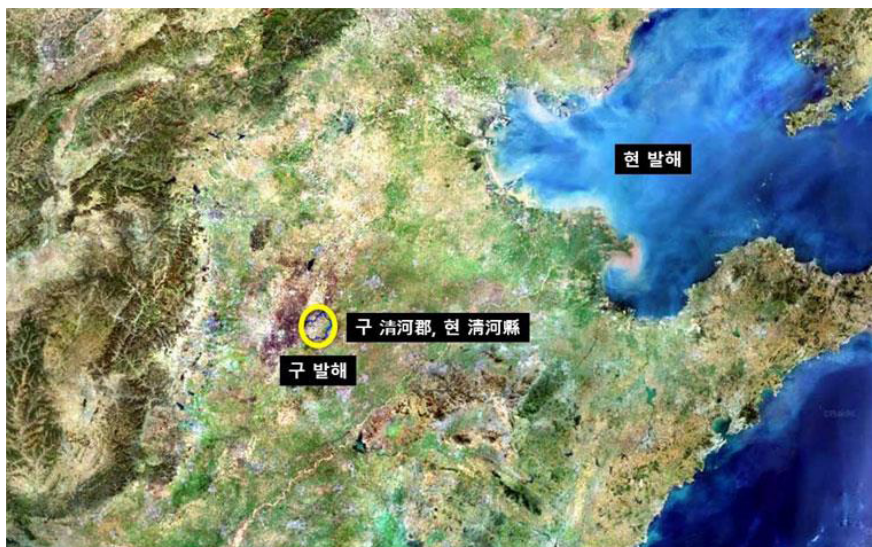
〈표 02〉 『한서(漢書)』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상기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을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에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는 일본 지리학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長久保赤水(나가쿠보 아카미즈, 1717~1801)가 天明 5년(1785) 청(淸)나라의 각종 지도 등을 참고로 제작한 지도로서, 당시 일본에서 전국(全國) 제번(諸藩)의 교육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신뢰성을 갖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는 비록 전한(前漢) 시기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고 전한(前漢) 이후 여러 지명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이동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고대 중원의 지명들이 여전히 많이 기록돼 있고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돼 있어, 대략적인 고지역(古地域)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04〉 『한서(漢書)』 기록에 등장하는 발해(渤海) 관련 지명들.

위 그림을 보면 『한서(漢書)』에 등장하는 발해(渤海), 발해군(渤海郡) 관련 지명들이 ‘현재의 발해와 상관없이’ 모두 고대 황하(古黃河)를 중심으로 좌우에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전한(前漢) 당시 발해는 황하가 유입되는 곳으로, 자주 침수가 일어났던 내륙의 방대한 저지대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위치는 상기 『한서(漢書)』 기록들이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인, 전한(前漢) 고제(高帝, BC 202-195)가 설치한 청하군(清河郡) 즉, 현재의 하북성 남부 청하현(清河縣)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05〉 전한(前漢) 당시 발해군(渤海郡)과 인접해 있던 舊 청하군(清河郡)인 現 하북성 남부 청하현. 위성 사진의 저지대(짙은 색 부분) 인근이 내륙해인 발해로 추정된다. 고대 중국의 큰 강이었던 황하(黃河)는 이 지역으로 흘렀으나(상기 「大清廣輿圖」 참조) 현재는 물이 마르고 물길이 바뀌었다. 이는 고대 발해 역시 황하가 이 지역(청하 인근)을 통과하며 많은 물을 댔으나 현재는 황하와 함께 말랐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5. 고대 황하의 하류(河流)에 따른 지역별 명칭(별칭)

당(唐) 시기 장수절(張守節)이 저술한 『史記正義』 「夏本紀」에는 황하(河)가 기주(冀州)에 이르러 9개의 강(九河)으로 흩어졌다가, 창주(滄州)에 이르러서는 ‘다시 하나의 큰 강(一大河)’ 이 된다고 기록돼 있다.

『史記正義』 夏本紀

河至冀州, 分布為九河, 下至滄州, 更同合為一大河.

(황하가 기주(冀州)에 이르러 나누어 퍼져 구하(九河)가 된 뒤, 아래로 창주(滄州)에 이르러 다시 함께 합해져 하나의 큰 강(大河)이 된다.)

즉, 당(唐)시기에는 황하가 서쪽에서 흘러오다 태항산맥 남부(고대 冀州. <그림 05> 좌측 산맥의 남단)의 넓은 저지대에 이르러, 위 <그림 05>의 청하현(淸河縣) 인근까지 9개의 강(九河)로 퍼져 흐르다, 당(唐) 이전 발해군(勃海郡) 인근이었던 창주(滄州, <그림 05>의 ‘구 발해’ 인근)에 모여들고, 이후 다시 ‘하나의 큰 강(大河)이 되어’ 동쪽 큰 바다(황해)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사기정의(史記正義)』가 기록되던 당나라 시기까지 중원 내륙 황하 유역에는 현재에는 찾을 수 없는 ‘황하에서 퍼져나간 9개의 강(九河)’이 있을 정도로 넓은 저지대가 있었고, 이 여러 갈래의 강들은 고대 발해 인근 지역인 창주(滄州)를 지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 큰 강이 되어(為一大河) 대해(현 발해)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한서(漢書)』 「구혁지(溝洫志)」 기록대로, 비가 많이 오고 ‘동북풍’이 불면 ‘海(勃海の 물)’가 넘쳐 ‘서남쪽’으로 흘러 ‘구하(九河)의 땅’을 海(발해의 물)로 잠기게 했다고 한다면, 서한(西漢) 시기에는 ‘구하(九河) 동북쪽으로 발해와 연결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해 상기 당나라 시기 기록인 『史記正義』에는 구하(九河)가 발해가 아닌 창주(滄州)와 연결돼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구하(九河)와 연결된 창주(滄州)지역은 고대 발해 인근의 땅이었다. 이는 위(魏)나라 시기 발해군(勃海郡)이 창수군(滄水郡)으로 개명되었고, 창주(滄州) 부양군(浮陽郡) 지역이 한·진(漢·晉)시기에 발해군에 속했던 사실로 확인된다. 이 기사들을 종합하고 <그림 04>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의 고황하(古黃河)의 하류도(河流道)와 비교하면 고대 황하의 흐름에 따른 구간별 명칭(별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

[고대 황하의 河流에 따른 시대별 명칭(別칭)과 방향]

(西南) 황하[河(漢, 唐)] ⇨ 구하[九河(漢, 唐)] ⇨
발해[渤海(漢), 滄州(渤海郡 인근, 唐)] ⇨ 대하[大河(唐)] (東北)



〈그림 06〉 고대 황하의 하류(河流)에 따른 지역별 명칭(別칭).

황하(河)는 태항산맥 서쪽 산지에서 남쪽으로 흐르다 고대 태항산맥 남쪽의 옛 기주(古冀州)에 이른다. 옛 기주(古冀州)를 빠져나온 황하(河)는 동북쪽으로 넓게 퍼져 흐르는데, 漢나라 시기에는 황하(河)가 퍼진 구하(九河)의 동북쪽에 동북풍이 불면 ‘바닷물이 넘쳐(海水溢)’ 서남쪽으로 흘러 구하(九河)의 땅을 침수시켰던 ‘내륙의 발해’ (『漢書』 “河入渤海…東北風, 海水溢, 西南出, 濶數百里, 九河之地已為海所漸矣”)와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唐나라 시기에는 황하(河)가 구하(九河) 지역을 지나면 발해가 아닌 고대 발해 인근이었던 창주(滄州, 하북성 청하현 인근)에 이른 뒤 다시 하나의 큰 강(一大河)이 된다. 이는 唐 이후 발해의 수역이 줄었거나, 아니면 『索隱』의 기록대로 당나라 시기에 발해(勃海)를 ‘해(海) 옆(傍)의 물이 끊기는 지역(海傍曰勃, 斷水曰解)’²³⁾이라고 인식하여 구하(九河) 유역부터 대하(大河) 지역 사이의 물이 많은 지역을 범칭하여 발해(勃海)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史記』 司馬相如列傳 “浮勃解…[索隱案：齊都賦云海傍曰勃, 斷水曰解也.]”

6. 현재와 달랐던 고대 ‘중국(中國)’의 개념

『사기(史記)』에는 기원전 3세기 진(秦) 당시 ‘중국(中國)’의 범위가 현재의 일반적 상식과 달리 황하 이남 지역을 중국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기(史記)』가 기록되던 기원전 1세기 서한(西漢) 당시 발해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역시 현재와 달랐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史記』 「天官書」 第五

及秦并吞三晉燕代，自河山以南者中國(正義河黃河也山華山也從華山及黃河以南為中國也)中國於四海內則在東南.

(진(秦)나라가 삼진(三晉)과 연(燕), 대(代) 지구를 병탄한 후에 화산(華山)과 황하 이남 지구를 중국이라고 일컬었다(정의: 하(河)는 황하이고 산(山)은 화산이다. 화산부터 황하이남까지를 중국으로 여겼다. 중국은 사해(四海) 중에 동남방향에 있다.)

『史記』 「天官書」 第五

故中國山川東北流，其維，首在隴，蜀，尾沒于勃碣(正義言中國山及川東北流行，若南山首在崑崙蔥嶺，東北行，連隴山至南山，華山，渡河東北盡碣石山。黃河首起崑崙山，渭水岷江發源出隴山，皆東北東入渤海也)

(그래서 중국의 산맥과 강물은 서남쪽에서 동북방향으로 흐르는데, 산천의 원두(源頭, 발원지)는 농(隴)과 촉(蜀) 지구이고, 말미에는 발해(渤海)와 갈석산(碣石山)으로 빠져나간다(정의: 중국의 산과 강은 동북으로 흐르는데, 남산의 경우 시작(首)은 곤륜 총령에 있고, 동쪽으로 지나(行) 농산과 연결되어 남산, 화산에 이르고, 황하를 건너 동북쪽으로 갈석산에 이른다. 황하는 시작(首)이 곤륜산으로, 위수와 민강이 발원하여 농산을 나가는데, 모두 동북동쪽으로 발해에 유입된다.))

위 기사와 같이 고대 ‘중국’ 이 황하 이남, 사해(四海)의 동남쪽에 있었다면, 고대 중국의 산맥과 강물이 이어지다 동쪽 끝(尾)에 이르러 빠져나간다는 발갈(勃碣), 즉, 발해(渤海)와 갈석산(碣石山)은 고대 중국(사해(四海)의 동남)의 북쪽 경계지역으로 볼 수 있는 황하 유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산맥을 보면 ‘황하(黃河)’가 서쪽의 높은 산지(산맥)에서 이어져 오다 갑자기 평지를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현 태항산맥 최남단 지역인 <그림 06>의 고기주(古冀州) 지역이다. 황하를 따라 이어지던 중국의 산맥은 이 지역을 끝으로 더이상 동쪽으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중국의 산맥과 하천(中國山川)의 끝(尾)에 있다는 발해와 갈석(尾沒于勃碣) 역시 기록대로 이 인근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대 발해와 갈석이 지금처럼 황해 내해(발해)가 아니라 서쪽에서 황하를 따라 이어지는 산맥이 끝나고 황하가 넓게 퍼져나가는 태항산맥 남부 인근 지역, 즉 하북성(河北省) 남부 일대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7. 고대 중원 내륙의 구운소금(煮鹽, 熬鹽)과 관련된 기록들

이러한 추정 즉, 고대 발해가 산맥이 끝나고 황하가 넓게 퍼져나가는 태항산맥 남부 인근 지역(河北省 남부 일대)에 있었다는 추정은 고대 이 지역에서 구운소금(소금물을 끓여 생산한 소금)이 있었다는 『관자(管子)』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管子』 卷二十三

管子對曰, 可夫楚有汝漢之金, 齊有渠展之鹽, 燕有遼東之煮, 此三者亦可以當武王之數.

(관자가 말하길 “할 수 있습니다. 초나라는 여수(汝水)와 한수(漢水)의 금이 있고, 제나라는 거전(渠展)의 소금이 있고, 연나라는 요동의 구운소금(煮

=煮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주나라) 무왕이 쓴 정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록 중 관자(管子)가 생존했던 춘추시대에 연(燕)나라 요동에서 구운소금(煮=煮鹽)이 생산되었다는 내용은, 현재의 연(燕)나라 영역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북경(北京) 일대를 중심으로 한 발해만 인근에서 구운소금이 생산된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북경으로 인식되는 연(燕)의 위치는 唐(당) 시기인 서기 730년(開元十八年)에 유주(幽州) 3현을 분리해, 연(燕)의 수도였던 계(薊)와 이후 연에 속했던 어양(漁陽)을 설치하면서 유주(현 북경일대)로 이동된 이후의 연(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현재의 북경 일대의 연(燕)에서 구운소금이 생산되었다기보다는 『史記』의 기록대로 전국시대 ‘북쪽의 만맥(蠻貉)에 막히고 제(齊)와 진(晉)에 끼인(措齊晉)’ 약소국 연(燕)나라²⁵⁾에 속한 요동(遼東)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구자는 이전 논문을 통해 연(燕)나라 동쪽에 있었다는 요동(遼東)²⁶⁾의 위치를 현 하북성 중남부인 석가장시(石家莊市) 인근으로 비정하였는데,²⁷⁾ 이곳이 바로 연나라 요동의 구운소금(煮鹽)이 생산되는 곳이고, 그곳(하북성 중

24) 『舊唐書』卷三十九 志第十九, “薊州：開元十八年, 分幽州之三縣置薊州. 天寶元年, 改為漁陽郡. 乾元元年, 復為薊州.” (계주 : 개원18년(730년)에 유주의 세 현을 분리해 설치했다. 천보원년(742년)에 어양군으로 고쳤다가, 건원원년(758년)에 다시 계주가 되었다.)

25) 『史記』燕召公世家, “燕(北)〔外〕迫蠻貉, 內措齊晉, 崎嶇疆國之間, 最為弱小, 幾滅者數矣.”

26) 『戰國策』卷二十九, “蘇秦將為從北說燕文侯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曰, 燕東有朝鮮, 遼東.”

27) 앞의 논문 이기훈, 2023 참조. 연구자는 전국시대 말부터 진한(秦漢)시기까지의 요동이 하북성 중남부라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시하였다. (1) 요동은 연(燕), 제(齊), 조(趙)가 공유한 곳이었다. (2) 후한 당시 요하는 현재와 달리 동쪽으로 곧게 흐르는 강이었다. (3) 요동군 치소 양평은 중원 내륙의 장수(漳水), 황하(河)와 연결된 양수(梁水) 인근에 있었다. (4) 요동군에서 분리된 창려의 위치는 현재의 북경 동쪽이 아니라 북경 서남쪽이었다. (5) 요주(遼州)와 요산(遼山), 상곡(上谷·고조선과 흉노 경계)은 하북성 중부에 있었다. (6) 요동에 있다는 진(秦)장성 동단은 황하 동쪽(山西省, 河北省 일대)의 동호와 예맥조선을 넘을 수 없다.

남부)이 바로 ‘발해’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북성 중남부에서 구운소금이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당(唐)나라 시기 현 하북성 남부에 있었던 넓은 늪지대인 대륙택(大陸澤) 주변에 소금기가 있는 샘(咸泉)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 물을 끓여 구운소금(煮鹽)을 생산하여 돈을 벌기도 했다는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詞典網』 대륙택(大陸澤)²⁸⁾

古澤藪名。亦名巨鹿澤，廣阿澤。在今河北任縣，巨鹿，隆堯三縣之間。…『元和志』²⁹⁾卷15巨鹿縣：“大陸澤一名巨鹿，在縣西北五里。…澤東西二十里，南北三十里。…澤畔又有咸泉，煮而成鹽。百姓資之。”

(옛 늪지 이름이다. 거록택, 광아택이라고도 부른다. 현 하북성 (남부의) 임현, 거록현, 용요현 사이에 있었다. (唐 시기 지리서인) 『원화지』 권15 거록현 조에는 ‘대륙택은 거록택이라고도 하는데, … 거록택은 동서 20리이고 남북 30리이다. … 거록택 주변에는 또 소금기가 있는 샘(咸泉)이 있는데, 끓이면 소금이 된다. 백성들이 이를 통해 돈을 번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중원 내륙(하북성 남부)에서 당(唐)나라 시기까지도 구운소금(자염)이 생산됐던 사실은 이 지역이 고대 해수가 유입되던 바다였음을 의미하고, 상기 춘추시대 『관자(管子)』의 기록인 ‘연(燕)나라 요동에서 구운소금이 생산된다(燕有遼東之羹)’라는 내용 중 등장하는 ‘구운소금(羹)’이 바로

28) 『詞典網』 大陸澤 <https://www.cidianwang.com/lishi/diming/2/13852ei.htm> (2024.03.27.접속)

29) 『元和志』는 『元和郡縣圖志』로서, 당(唐) 이길보(李吉甫)가 지었다. 당나라 시기 주현(州縣)에 대한 지리를 설명한 책이다.

당나라 시기 이 지역(하북성 남부)의 ‘구운소금(煮鹽)’이며 ‘연(燕)나라 요동’ 역시 이곳(대륙택) 인근일 가능성 높음을 시사한다.

구운소금이 생산되던 하북성 남부 대륙택(大陸澤)은 현재 사라지고 없으나, 같은 하북성 남부에는 현재 남북으로 약 20Km, 동서 6Km에 달하는 넓은 호수인 형수호(衡水湖)가 있다(<그림 05> 청하현 북쪽, <그림 06>의 발해 북쪽). 이 형수호에 대하여 중국 정부기관인 ‘형수빈호신구관위회(衡水濱湖新區管委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衡水湖在歷史資料中多有記載。『漢志』中提到：“信都縣有泚水，稱信泚。”

『洪志』中指出：“海子所謂河也，又稱泚水，即冀州海子。” 『眞定志』記載：“衡水鹽河與冀州城東海子，南北連亘五十餘里，舊名冀衡大窪。”³⁰⁾

(형수호(衡水湖)는 사료에 많은 기록이 있다. 『漢志(漢書藝文志)』에는 “신도현(信都縣)에 큰물(泚水)이 있는데, 신흥(信潁)이라고 부른다.” 고 언급되어 있고, 『洪志』에는 “해자(海子)는 하(河)를 일컫는다. 홍수(泚水)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기주(冀州)의 해자(海子)이다.”, 『眞定志』에는 “형수(衡水) 염하(鹽河)와 기주성 동쪽의 해자(海子)는 남북으로 50여 리에 뻗쳐 있는데, 옛날 명칭은 기형(冀衡) 지역의 대와(大窪:큰 웅덩이)이다.” 라고 기록돼 있다.)

위 기록은 현재 하북성 남부 내륙의 형수호(衡水湖)가 과거 ‘해자(海子)’³¹⁾, ‘황하(河)’, ‘염하(鹽河)’와 관련된 호수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30) 衡水濱湖新區管委會, “衡水湖的起源與發展(형수호의 기원과 발전)” [http://www.hsbhxxq.gov.cn/col/col884/\(2024.02.22,접속\)](http://www.hsbhxxq.gov.cn/col/col884/(2024.02.22,접속))

31) ‘海子’는 방언으로 ‘호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고려대 중한사전), 이는 海가 반드시 현재의 대해(大海)만을 의미하는 바다가 아닌 내륙의 호수를 의미하기도 했음을 짐작케 한다.

‘바다(海)’ , ‘소금(鹽)’ 과 관련된 형수호가 과거 중원 내륙(현 하북성 남부)에서 남북으로 50여 리(약 28.8Km)³²⁾에 뻗쳐 있었다면 고대 해수면이 낮았을 때에는 형수호 인근(하북성 남부)의 더 넓은 저지대(大窪)에 염해(鹽海)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그림 01〉, 〈그림 02〉, 〈그림 03〉 참조)

IV. 1세기~3세기 초(後漢, 三國 시기) 발해 관련 기록

남북조 시기 남조 송(宋)의 범엽(范曄)이 432년 완성한 『후한서(後漢書)』와 서진(西晉) 시기인 3세기 후반에 기록된 『삼국지(三國志)』 기록을 보면 발해의 위치가 후한(後漢), 삼국(三國)시기인 1세기~3세기에도 전한(前漢) 시기와 같이 황하 인근에 있었음을 발해와 관련된 지명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後漢書』, 本紀, 卷八, 孝和孝殤帝紀	(永元二年, 90년) 夏五月庚戌, 分太山為濟北國, 分樂成, 涿郡, 勃海為河間國
	(永元六年, 94년) 詔以勃海郡屬冀州.
『後漢書』, 本紀, 卷五, 孝安帝劉祐紀	(永初四年, 110년) 海賊張伯路復與勃海, 平原劇賊 劉文河, 周文光等攻厭次, 殺縣令, 遣御史中丞王宗督青州刺史法雄討破之.
『後漢書』, 本紀, 卷九, 孝獻帝劉協紀	(初平二年, 191년) 十一月, 青州黃巾寇太山, 太山太守應劭擊破之. 黃巾轉寇勃海, 公孫瓚與戰於東光, 復大破之.
『後漢書』, 列傳, 卷五十, 孝明八王列傳	建初四年(79년), 以清河之游, 觀津, 勃海之東光, 成平, 涿郡之中水, 饒陽, 安平, 南深澤八縣益樂成國.

32) 『眞定志』에 나오는 眞定府(현 석가장시)가 설치됐던 시기는 明代로, 명나라 기준 1리는 576m였으므로(百度百科), 50리는 28.8Km에 해당한다.

『後漢書』, 列傳, 卷七十三, 劉虞公孫瓚陶謙列傳	張純復與畔胡丘力居等寇漁陽, 河間, 勃海, 入平原, 多所殺略.
『後漢書』, 志, 第十, 天文上	二十八宿各布列, 下應十二子. 星經曰…第三星主冀州, 常以五戌日候之, 甲戌為魏郡, 勃海, 丙戌為安平, 戊戌為鉅鹿, 河間, 庚戌為清河, 趙國, 壬戌為恆山, 凡八郡.
『後漢書』, 志, 第二十, 郡國二, 豫州	魏郡: 鉅鹿 常山 中山 安平 河間 清河 趙國 勃海 右冀州
『後漢書』, 志, 第二十, 郡國二, 冀州	文安故屬勃海, 束州故屬勃海.
『三國志』, 魏書一, 武帝曹操	公(太祖)之圍鄴也, 譚略取甘陵, 安平, 勃海, 河間. 尚敗, 還中山.
『三國志』, 魏書六, 董二袁 劉傳, 袁紹	從事沮授沮音植. 說紹曰: …濟河而北, 則勃海稽首. 振一郡之卒, 撮冀州之眾, 威震河朔, 名重天下.

〈표 03〉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상기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을 『대청광여도(大清廣輿圖)』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07〉³³⁾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기록들을 분석해 보면 1세기~3세기 사이의 발해는 고허하(古黃河)가 흐르던 위(魏), 청하(清河), 조(趙), 안평(安平), 하간(河間), 동광(東光) 지역을 포괄하는 하북성 남부의 넓은 지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전한(前漢) 청하군(清河郡) 인근에 있던 발해와 가까운 지역으로 발해가 전한(前漢) 이후 위치상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해(渤海)는 전한(前漢)과 마찬가지로 후한(後漢) 시기에도 역시 여러 차례 범람하였음을 『후한서(後漢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BC 2세기 ~ AD 2세기 한(漢) 시기를 거쳐 발해가 현재의 바다가 아닌 내륙의 거대한 호수나 큰 강과 같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33) (清)平江九龍,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本紀, 卷六, 孝順孝冲 孝質帝紀	(本初元年, 146년) 海水溢. 戊申, 使謁者案行, 收葬樂安, 北海人爲水所漂沒死者, 又稟給貧羸. (해수(海水)가 넘쳤다. 무신에 사자(謁者)로 하여금 순시하도록 하여 낙안, 북해군 사람으로 물에 떠내려가 몰사한 자들을 거두어 장사지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녹을 내려주었다.)
本紀, 卷七, 孝桓帝劉 志紀	(永康元年, 167년) 六州大水, 勃海海溢. 詔州郡賜溺死者七歲以上錢 (여섯 주에 큰 홍수가 나 발해의 해수(海)가 넘쳤다. 주와 군의 익사자 중 7세 이상인 자들에게 돈을 하사하도록 조서를 내렸다.)
志, 第十五, 五行三	永康元年(167년) 八月, 六州大水, 勃海海溢, 沒殺人.是時桓帝奢侈淫祀, 其十一月崩, 無嗣. (영강원년 8월에 6주에 큰 홍수가 나 발해의 해수가 넘쳐 사람들이 몰사했다. 이 시기 환제가 사치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려 그해 11월에 붕어하니 후사가 없었다.)

〈표 04〉 후한(後漢) 시기 발해(渤海)가 넘친 사실을 전하는 『후한서(後漢書)』 기록

상기 기록 중 해수(海水)는 앞서 밝혔듯이 ‘바닷물’이 아닌 ‘발해의 물’로 해석된다. 후한(後漢) 당시 발해는 중원 내륙의 6개 주(州)에 큰비가 내려 더 이상 물(海水)을 담아 둘 수 없어 넘쳤던 중원 중심지의 내륙해였던 사실을 상기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륙호수였던 발해의 물이 넘쳐 그 인근 또는 하류에 있던 낙안(樂安)과 북해(北海) 사람들이 익사했다는 기사를 통해, 발해(渤海)와 북해(北海)가 서로 다른 바다임을 알 수 있다. 하북성 남부의 발해보다 북쪽(北)에 있는 바다(海)라면, 북해(北海)는 현재 하북성 중북부의 ‘발해’로서, 산둥반도 북쪽의 바다(황해 북쪽 바다)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발해(황해 북쪽 바다)는 한(漢) 시기의 내륙해인 발해와 다른 북해(北海)였으며, 현재 중국에 북해(北

海)로 불리는 대해(大海)가 없으므로, 후대에 이 북해가 ‘발해’로 호칭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V. 3세기말~6세기(南北朝 시기) 발해 관련 기록

서진(西晉, 265-316)부터 남북조시기(3세기 후반~6세기) 내용이 기록된 『진서(晉書)』, 『위서(魏書)』, 『송서(宋書)』, 『북사(北史)』의 발해 관련 지역명을 살펴보면 내륙해인 발해의 위치가 그 이전의 한(漢) 시기와 큰 차이는 없으나 황하 하류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을 알 수 없다.

문헌	내용 배경시기	成書연대
『진서(晉書)』	서진(西晉, 265-316), 동진(東晉, 317-418)	646년
『위서(魏書)』	북위(北魏, 386-534)	554년
『송서(宋書)』	유송(劉宋, 420-479)	488년
『북사(北史)』	남북조(420-589) 북조 : 북위, 서위, 동위, 북제, 수	659년

〈표 05〉 『진서(晉書)』, 『위서(魏書)』, 『송서(宋書)』, 『북사(北史)』의 배경시기과 成書연대

1. 『진서(晉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列傳, 卷三十三	石苞字仲容, 渤海南皮人也.
列傳, 卷六十	孟觀字叔時, 渤海東光人也.
載記, 卷一百四	章武人王脊起兵于科斗壘, 擾亂勒河間, 渤海諸郡.
	勒之征樂平也, 其南和令趙領召合廣川, 平原, 渤海數千戶叛勒, 奔于邵續
	并前趙國, 廣平, 陽平, 章武, 渤海, 河間, 上黨, 定襄, 范陽, 漁陽, 武邑, 燕國, 樂陵十三郡.
載記, 卷一百五	大雨霖, 中山, 常山尤甚, 漳沔汎溢, 衝陷山谷, 巨松僵拔, 浮于漳沔, 東至渤海, 原隰之間皆如山積.
志, 卷十四	渤海郡: 南皮 東光 浮陽 饒安 高城 重合 東安陵 碯 廣川 阜城

〈표 06〉 『진서(晉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그림 08〉³⁴⁾ 『진서(晉書)』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34)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2. 『위서(魏書)』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紀, 卷二, 太祖道武帝托跋珪紀	博陵 勃海, 章武羣盜並起, … 據勃海之南皮, 自號征東大將軍, 烏丸王, 抄掠諸郡.
	庚戌, 征虜將軍庾岳破張超於勃海, 超走平原, 為其黨所殺.
紀, 卷十二, 孝靜帝元善見紀	甲辰, 詔以齊文襄王為相國, 齊王.. 食冀州之勃海, 長樂, 安德, 武邑, 瀛州之河間五郡, 邑十五萬戶, 餘如故.
列傳, 卷二十一上, 上獻文六王列傳	及五等開建, 羽食勃海之東光二千戶.
列傳, 卷九十一, 術藝	王早, 勃海南皮人也.
志, 卷一百五之一, 天象	聚黨三千餘家, 據勃海之南皮, 自號征東大將軍, 烏丸王, 鈔掠諸郡.
志, 卷一百五之四, 天象	是時, 勃海王歡起兵信都, 改元中興.
志, 卷一百六上, 地形	勃海郡領縣四 南皮 東光 脩 安陵
	浮陽郡領縣四 浮陽[郡治.二漢, 晉屬 勃海.西接漳水, 衡水入焉, 今謂之合口.有浮水]
	武邑郡領縣五 武遂 皇城[前漢屬勃海] 灌津 武邑 武強
	安德[二漢, 晉屬平原, 後屬勃海, 後屬.]
	平昌[太和二十二年復, 屬勃海.熙平中屬樂陵, 後屬.治平昌城]
志, 卷一百一十二下, 靈徵	泰常三年八月, 嘉禾生於勃海郡東光縣
	三月, 勃海南皮縣獻白雉二.

〈표 07〉 『위서(魏書)』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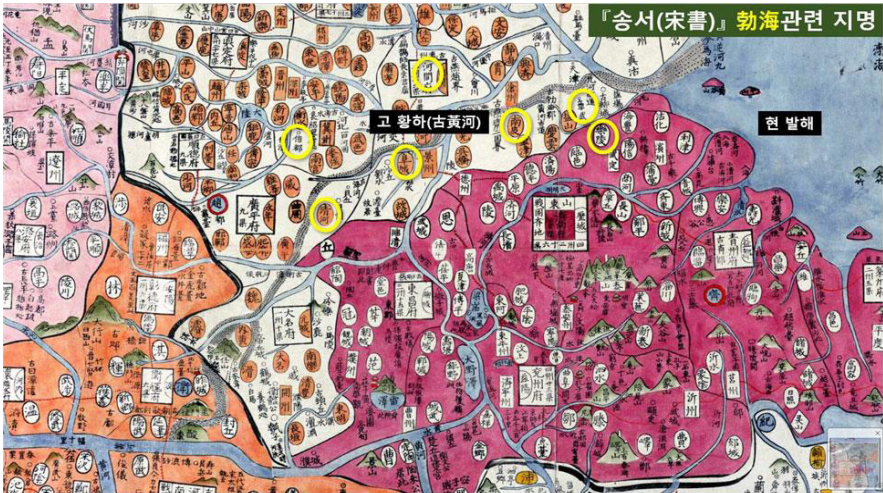
〈그림 09〉³⁵⁾ 『위서(魏書)』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3. 『송서(宋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志, 卷三十六, 州郡二	廣川縣, 前漢屬信都, 後漢屬清河, 魏屬勃海, 晉還清河. 陽信令, 二漢屬勃海, 晉太康地志屬樂陵 城平令, 前漢屬勃海, 後漢, 晉太康地志屬河間. 章武令, 二漢屬勃海, 晉太康地志屬章武. 南皮令, 漢舊縣, 屬勃海. 阜城令, 前漢勃海有阜城縣.
---------------------	---

〈표 08〉 『송서(宋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35)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그림 10〉³⁶⁾ 『송서(宋書)』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4. 『북사(北史)』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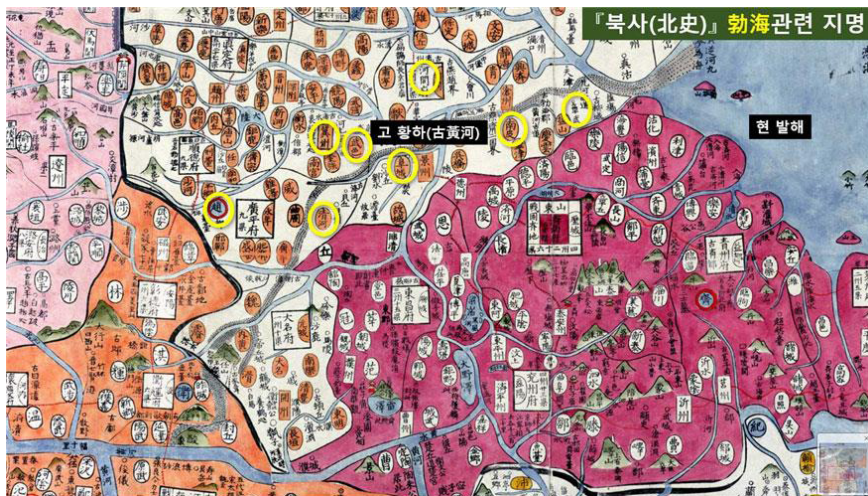
本紀, 卷一, 魏序紀太祖道武帝 太宗明元帝紀	車駕次于恒山之陽博陵, 勃海, 章武諸郡羣盜並起, 略陽公 遵等討之. 食冀州之勃海, 長樂, 安德, 武邑, 瀛州之河間五郡.
本紀, 卷八, 齊世祖武成帝後主 幼主紀	三月戊子, 詔給西兗, 梁, 滄, 趙州, 司州之東郡陽平清河武 都, 冀州之長樂勃海遭水滂之處貧下戶粟各有差.
列傳, 卷八十一, 九儒林上	李鉉字寶鼎, 勃海南皮人也. 劉晝字孔昭, 勃海阜城人也.

〈표 09〉 『북사(北史)』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상기 내용 중 「齊世祖武成帝後主幼主紀」를 보면 “기주(冀州)에 속한 장

36) (清)平江九龍,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락과 발해 지역의 홍수 피해를 당한 곳의 가난한 집들에 곡식을 나누어주었다(冀州之長樂勃海遭水滌之處貧下戶粟各有差).” 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북제(北齊, 550-577) 당시도 발해(渤海) 지역이 홍수가 일어나는, 태항산맥 인근의 기주(冀州)와 가까운 내륙의 저지대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11〉³⁷⁾ 『북사(北史)』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VI. 7세기~9세기(隋, 唐 시기) 발해 관련 기록

수(隋, 581-619), 당(唐, 618-907) 왕조는 고구려와 대규모 전쟁을 벌인 왕조로서, 당시 발해의 위치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나라 양제(煬帝)는 612년(大業八年) 고구려를 공격할 때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린다.

37)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隋書』 卷四 帝紀 第四 煬帝下

高麗小醜, 迷昏不恭, 崇聚勃·碣之間, 荐食遼·獫之境. …今宜授律啓行, 分麾屈路, 掩勃解而雷震, 歷夫餘以電掃.

(고구려의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미옥스럽고 공손치 못하여 발해(勃)와 갈석(碣) 사이에 모이고, 요동과 예의 경계를 거둬 잠식하였다.…지금 군율을 내려 출발하고 지휘를 나누어 길을 나아가되, 발해(勃解)를 엄습하여 천둥같이 진동하고, 扶餘를 경유하여 번개처럼 쓸어버리라.)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7세기 초 수(隋) 당시 발해(勃, 勃解)와 갈석(碣) 지역에 고구려가 영향력을 확대(崇聚)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양제는 이 고구려가 잠식하고 있던 발해지역을 엄습하여 천둥같이 차지(진동)하라는 조서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구려가 잠식했던 발해는 현재의 황해 북부의 발해가 아닌 그 이전 시대와 같이 중원의 내륙의 바다와 같은 거대한 호수였음을 다음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수서(隋書)』 「天文中」

黃星墜, 海水傾. 亦曰, 驥星墜而勃海決. 星隕如雨, 天子微, 諸侯力政.

(노란별이 떨어져 바닷물이 넘치고, 빠른 별(驥星)이 떨어져 발해의 독이 터졌다. 별이 비처럼 떨어져, 천자(天子)가 약해지고 제후들이 애쓰며 정치를 했다.)

『수서(隋書)』 「魏澹」

所謂決渤解之水, 復去隄防, 襄陵之災, 未可免也.

(소위 발해의 물이 터져(決) 제방(隄防)이 다시 사라지자(去) 양릉의 재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서(隋書)』 「刑法」

夫勃瀨之浸, 沾濡千里, 列國之政, 豈周之膏潤者歟!

(무릇 발해가 침수하여 천리가 물에 젖으니, 열국의 다스림이 어찌 주(周)

나라의 은혜(운택함) 때문일 수 있는가!)

이렇게 『수서(隋書)』에는 발해가 수(隋, 581-619) 당시에 해수(海水)가 넘치고(傾) 발해의 제방(隄防)이 무너져(決), ‘천 리나 되는 넓은 땅’ 이 물에 젖게 하는(沾濡千里) 내륙의 거대한 호수와 같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구려가 잠식했다는 발갈(勃碣) 지역의 발해(勃)는 현재의 황해 북쪽 바다(현 발해)가 아닌, 하북성 남부의 거대한 저지대로서, 한 번 넘치면 중원 내륙의 천 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저지대를 침수시켰던 바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침수는 앞서 밝혔듯이 지진에 의한 일시적 해일(海溢)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 발해가 해일과는 거리가 먼 내륙해임을 의미한다.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기록 중 발해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7세기~9세기 당시 발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 시대와 변함없이 하북성 남부의 옛 황하(古黃河) 유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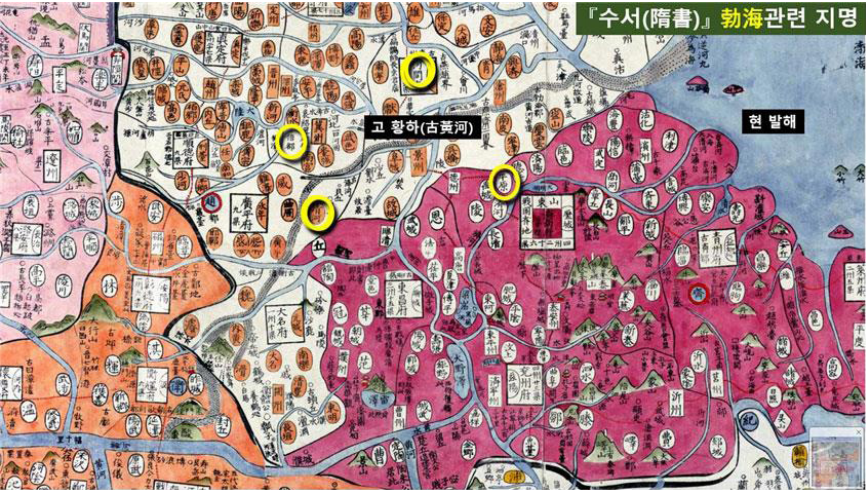
문헌	내용 배경시기	成書연대
『수서(隋書)』	수(隋, 581-619)	656년
『구당서(舊唐書)』	당(唐, 618-907)	945년
『신당서(新唐書)』	당(唐, 618-907)	1,060년

〈표 10〉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의 배경시기와 成書연대

1. 『수서(隋書)』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帝紀, 卷四, 煬帝楊廣下紀	清河賊張金稱眾數萬, 渤海賊帥格謙自號燕王, 山東苦之.
志, 第二十五, 地理中	豫州: 濟北郡 武陽郡 渤海郡 平原郡 信都郡 清河郡
列傳, 卷四十三, 觀德王雄	贈司徒 襄國 武安 渤海 清河 上黨 河間 濟北 高密 濟陰 長平 等十郡太守.
帝紀, 卷四, 煬帝楊廣下紀	渤海賊竇建德設壇於河間之樂壽, 自稱長樂王.

<표 11> 『수서(隋書)』 중 발해(勃海) 인근 지명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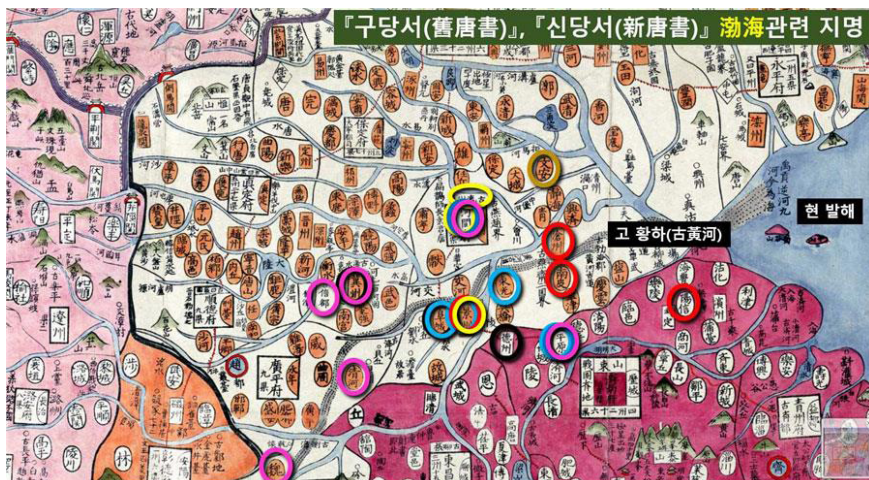
<그림 12>³⁸⁾ 『수서(隋書)』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38)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2.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舊唐書』, 地理二, 十道郡國二, 河北道, 冀州上	阜城漢縣, 屬渤海郡. 隋屬冀州. 蔣漢縣, 屬渤海郡. 隋舊隸觀州. 州廢, 屬德州.
『舊唐書』, 地理二, 十道郡國二, 河北道, 滄州上	南皮漢縣, 屬渤海郡. 至隋不改. 武德四年, 屬景州. 貞觀元年, 改屬滄州. … 無棣漢陽信縣, 屬渤海郡.
『舊唐書』, 地理二, 十道郡國二, 河北道, 景州	景州漢鬲縣地, 屬平原郡. 隋置弓高縣, 屬渤海郡. 武德四年, 於縣置觀州, 領弓高, 蔣, 阜城, 東光, 安陵, 胡蘇, 觀津七縣
『舊唐書』, 地理二, 十道郡國二, 河北道, 瀛州上	平舒漢東平舒縣, 屬渤海郡. 後去「東」字, 隋不改. 武德四年, 屬景州. 貞觀元年, 屬瀛州. 束城漢束州縣, 屬渤海郡. 隋曰束城, 屬河間郡.
『舊唐書』, 地理二, 十道郡國二, 河北道, 莫州上	文安漢縣, 屬渤海郡.
『新唐書』, 卷三十一, 志, 天文一	得漢北海, 千乘, 淄川, 濟南, 齊郡及平原, 渤海, 九河故道之南, 濱于碣石. … 得漢河間, 涿郡, 廣陽.
『新唐書』, 地理三, 河北道	河北道, 蓋古幽, 冀二州之境, 漢河內, 魏, 渤海, 瀋河, 平原, 常山, 上谷, 涿, 漁陽, 右北平, 遼西, 真定, 中山, 信都, 河間, 廣陽等郡國.

〈표 12〉『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중 발해(渤海) 인근 지명 기록



〈그림 13〉³⁹⁾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에 기록된 발해와 관련된 지명들.

VII. 발해(渤海), 북해(北海)의 구분

전한(前漢) 무제(武帝)가 고조선을 물리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된 『사기(史記)』에는 발해(勃海), 북해(北海), 창해(滄海), 동해(東海), 거해(巨海), 남해(南海), 한해(翰海) 등 여러 명칭의 바다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고조선과 가까운 바다는 발해(勃海), 북해(北海), 창해(滄海)이고, 산둥반도 동쪽, 남쪽 바다는 동해(東海)와 거해(巨海), 중국 서북방 흉노 지역에 있던 바다는 한해(翰海)로 볼 수 있다.

39) (清)平江九霞,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785, 東都 출판

고조선과 가까운 바다	(1) 발해(勃海) 擊朝鮮…從齊浮渤海.(조선을 치기위해 제(齊)에서 발해에 배를 띄웠다.)
	(2) 북해(北海) 徇齊至北海, 多所殘滅.(제(齊)를 빼앗고 북쪽 바다(北海)에까지 이르며 (적들을) 많이 잔멸했다.)
	(3) 창해(滄海) 滅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閒靡然發動.(조선(朝鮮)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해군(滄海郡)을 설치하니, 연(燕)과 제(齊) 지역은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 소동이 일어났다.)
산동반도 동·남쪽 바다	(1) 동해(東海) 東定楚地泗(川)[水], 東海郡.(동쪽으로 초나라 땅인 사수와 동해 두 군(郡)을 평정하였다.)
	(2) 거해(巨海) 齊東踰巨海.(제나라 동쪽은 거해로 막혀있다.)
홍노 지역에 있던 바다	(1) 한해(翰海) 與左賢王接戰…臨翰海而還.(홍노의) 좌현왕과 접전하고…한해를 거쳐 돌아왔다.)

〈표 13〉 『사기(史記)』에 기록된 바다들의 위치

상기 전한(前漢)시기 고조선과 가까운 바다들인 발해(勃海), 북해(北海), 창해(滄海) 가운데, 창해(滄海)는 무제(武帝)가 BC 128년에 예군(薺君) 남려(南閭)가 투항했을 때 설치하려 했던 창해군(滄海郡) 인근 바다로, 창해군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고조선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으므로, 창해는 연(燕), 제(齊)의 북쪽, 고조선 남쪽에 위치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창해(滄海)는 후대에 발해와 지역명이 겹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⁴⁰⁾ 역시 제(齊)의 북쪽, 고조선 남쪽에 있었던 발해(渤海)와 가깝거나 같은 바다로 볼 수 있다.

40) 앞의 주 『魏書』 卷一百六上, 地形志二上第五 참조.

그렇다면, 고조선과 가까이 있던 발해(渤海)와 북해(北海) 중 한 곳이 현재의 황해 내해인 발해가 될 것이다. 『사기(史記)』의 다음 기록을 보면 진(秦)·한(漢) 당시 발해와 북해는 각각 구분되는 바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史記』 秦始皇本紀, 始皇二十八年

於是乃並勃海以東, 過黃, 腫, 窮成山, 登之罘, 立石頌秦德焉而去.

(이어 발해(勃海)를 따라 ‘동쪽으로’ 황(黃)과 추(腫)를 지나 성산(成山)까지 이르러 지부산(之罘山)에 올라 비석을 세워 진의 덕을 칭송한 다음 떠났다.)

상기 진시황 28년(秦始皇 二十八年, BC 219) 기록을 보면, 서쪽 섬서성(陝西省)에 있던 진시황이 발해를 따라 ‘동쪽으로’ 황(黃), 추(腫)를 지난 뒤 도착한 곳이 성산(成山)이었고 이어서 지부산(之罘山)에 올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발해를 기준으로 서쪽은 섬서성이고 발해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 황(黃)과 추(腫), 성산, 지부산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는 발해를 따라 동쪽으로(並勃海以東) 가면서 육지가 이어져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륙에 이어진 발해에 비해 당시(BC 205) 북해(北海)는 중국 남부의 초(楚)나라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제(齊)를 점령(徇)한 뒤 닿을 수 있던 북쪽 바다(北海)였다.

『史記』 項羽本紀

漢之二年冬, 項羽遂北至城陽, … 遂北燒夷齊城郭室屋, 皆阬田榮降卒, … 徇齊至北海, 多所殘滅. 齊人相聚而叛之.

(한(漢, 西楚霸王) 2년(BC 205) 겨울, 항우가 마침내 북(北)으로 성양(城陽)

에 이르자, … (항우는) 마침내 북(北)쪽 제(齊) 나라의 성곽과 집들을 불살라 평지로 만들고(夷), 모든 항복한 전영(田榮)의 군사들을 파문었다. … 제를 점령(徇)하고 북해(北海)까지 이르면서 많은 곳을 파괴하였다. 제 사람들은 다시 사람을 모아 반발했다.)

상기 기록의 북해(北海)는 제(齊)나라 북쪽에 있다는 발해⁴¹⁾와는 동시대에 구분되어 기록되던 바다였다. 이 두 바다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제(齊)의 영역이 서쪽 하북성 남부 청하(清河)부터 동쪽 산둥지역 낭야(琅邪)까지였으므로, ⁴²⁾ 발해는 제나라의 중심지인 청하와 낭야 사이의 북쪽 바다(하북성과 산둥성 사이의 북쪽 바다)로 볼 수 있고, 북해(北海)는 제나라 동쪽 끝인 낭야(琅邪)의 북쪽 바다, 즉 현재의 산둥반도 북쪽 발해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는 서한(西漢)시기 북해(北海)지역의 중심지인 북해군(北海郡) 치소를 현재의 발해와 가까운 산둥성 중동부 창락현(昌樂縣)으로 비정하고 있는데, ⁴³⁾ 이는 고대 북해가 산둥성 북쪽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위 두 기록을 보면 발해(渤海)는 중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면서 건널 수 있는 내륙해이고, 이에 비해 북해(北海)는 중원 남쪽 초나라 지역에서 북쪽으로 제(齊)가 있던 산둥반도 중부를 지나면 닿을 수 있는 현 발해로 볼

41) 앞의 주 『史記』本紀 凡十二卷 高祖本紀 내용 참고.

42) 『戰國策』卷八 齊一, “齊南有太山, 東有琅邪, 西有清河, 北有渤海.”
『詞典網』琅邪, “在今山東膠南市西南琅琊鎮”

43) (1) 『詞典網』北海郡 “西漢景帝二年(前155)分齊郡置, 治所在營陵縣(今山東昌樂縣東南五十里古城)”

(2) 발해와 북해가 동시대에 다르게 존재했던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인 『史記』의 한무제(漢武帝) 재위 시기 渤海와 北海가 서로 구분되어 기록된 사실과, 『晉書』, 『舊唐書』 등의 기록으로 확인된다. 특히 『新唐書』地理二 기록에 “河南道: 齊, 山陽, 東海, 琅邪, 北海… 暨平原, 渤海, 九江之境” 라는 기록을 보면 제나라 동쪽에 있다는 산둥지역 낭야(琅邪) 인근에 동해와 북해가 있었고, 중원 내륙 구강(九江: 현 안휘성 壽縣-詞典網)과 같이 河南道の 경계(境)를 이루는 내륙에 발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바다(발해, 북해)는 고조선을 공격한 한(漢) 무제(武帝) 재위(BC 141~BC 87) 당시에도 ‘서로 다른 바다’ 였는데, 이는 다음의 한무제(漢武帝) 재위 시기에 서로 구분되어 다르게 기록된 사실로 알 수 있다.

『史記』 朝鮮列傳

其秋(BC 109) 擊朝鮮…從齊浮渤海.(조선을 치기위해 제(齊)에서 발해에 배를 띄웠다.)

『史記』 滑稽列傳

武帝時, 徵北海太守.(무제 시기에 북해태수를 호출하였다.)

상기 기록에는 한무제(漢武帝) 재위 시기 발해(渤海)는 고조선을 치기 위해 건넌던 바다였고, 북해(北海)는 태수를 두어 다스렸던 북해군(北海郡) 인근 바다로, 발해와는 다른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발해와 북해가 전한(前漢) 시기에 구분되어 사용된 사실은 이후 당대(唐代)까지도 이어지는데, 이는 『史記』가 기록된 전한(前漢) 이후의 여러 사서들에 발해와 북해가 동시에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晉書』 卷三十九, 列傳

前渤海太守劉亮, 從子北海太守搏, 司空掾高柔並切諫, 浚怒, 誅之.

『晉書』 卷一百八, 載記

北海逢羨, 廣平游邃, 北平西方虔, 渤海封抽

『舊唐書』 卷三十六, 天文下

又得漢之北海, 千乘, 淄川, 濟南, 齊郡, 及平原, 渤海

『新唐書』 卷三十八, 地理二

河南道: 齊, 山陽, 東海, 琅邪, 北海, … 暨平原, 渤海, 九江之境.

상기 기록대로 발해와 북해(北海)가 동시대에 서로 다르게 존재했다면 한 무제(漢武帝)와 수양제(隋煬帝)가 각각 고조선, 고구려를 치기 위해 건너게 했던 바다 발해(渤海, 勃解)는, 고대 북해(北海)로 불렸던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 현재의 발해(과거 북해)와는 관련이 없는 당시의 또 다른 바다, 즉, 중원 내륙에 있던 발해(渤海)로 볼 수 있는 것이다.

VIII.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당시 발해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황해 내해(발해)가 아니라 중국 하북성(河北省) 남부에 있던 거대한 저지대였음을 각 시대별 사료를 통해 논증하였다.

전한(前漢) 이전 기록인 『산해경(山海經)』을 비롯하여 『사기(史記)』, 『한서(漢書)』에는 발해가 전한(前漢) 당시 황하(河) 하류 지역에 위치한 좌우(左右)에 육지가 있던 내륙해로서, 여러 차례 물이 범람하여 주변에 큰 피해를 주던 거대한 호수와 같은 바다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前漢) 당시 내륙에서 범람했던 발해의 대략적인 위치는 『한서(漢書)』의 발해(勃海) 관련 지명들이 고황하(古黃河) 인근인 현 하북성 중남부에 있었던 사실과, 『후한서(後漢書)』에 발해가 하북성 중남부에 있었던 중산국(中山國) 인근이

라는 거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발해가 현재의 중원 내륙에 있었던 사실은 한(漢) 이후 당대(唐代)까지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서기 1세기 이후 저술된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위서(魏書)』, 『송서(宋書)』, 『북사(北史)』,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등 역대 정사(正史)의 발해 관련 기록과 지명을 통해서 확인된다.

현재 발해로 불리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로 둘러싸인 황해 북쪽 바다는 전한(前漢) 이후 당대(唐代)까지도 북해(北海)로 불렸던, 중원 내륙의 발해와는 구분되는 바다였다. 이렇게 전한(前漢)이 고조선을 물리쳤을 때의 바다 발해(渤海)와 수(隋)나라가 고구려를 물리치기 위해 건넌 발해(勃, 勃瀾)가 현재의 발해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수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학계에서 고대 발해와 관련한 연구가 확대되어 본고의 내용이 검증된다면, 본고가 고대 발해의 위치를 재고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管子』
『舊唐書』
『北史』
『史記』
『山海經』
『三國志』
『尚書』
『宋書』
『水經注』
『隋書』
『隋書』
『新唐書』
『呂氏春秋』
『魏書』
『戰國策』
『晉書』
『漢書』
『淮南子』
『淮南鴻烈解』
『後漢書』

김진경, 「갈석산(碣石山)의 위치 비정(比定)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15, 2013, 346쪽.

리지린; 이덕일 해역, 『고조선연구』, 도서출판 말, 2018, 68~73쪽.

박성용,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위만조선 왕검성 위치 고찰」, 『한국 상고사의 쟁점 - 왕검성과 한군현』, 2016, 68~69쪽.

이기훈, 2023, 「평양과 발해만 북부 갈석산 비정의 문제점」, 『東아시아古代學』 72, 109~150쪽.

이진우, 2015, 「부여의 개국시기와 도읍지 위치에 관한 연구」, 『고조선 연구』 4, 23-

24쪽.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 『史記』 「朝鮮列傳」 “渤海”, [https://db.history.go.kr/\(2024.02.22.접속\)](https://db.history.go.kr/(2024.02.22.접속))

史寶琳(Pauline SEBILLAUD), 「中原地區公元前三千紀下半葉和公元前兩千紀的聚落分佈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437(부록77)쪽.

吳金祥;吳忱, 「關於河北平原黑龍港地區利用古河道建設地下水庫的探討」, 『海河水利』, 1985, 44쪽.

臧勵齋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831쪽.

(清)秦蕙田, 『五禮通考』 第27部分.

(清)平江九霞, 1785, 『大清廣輿圖原圖』, (日本)國立國會圖書館, 東都 출판

河北省地理研究所編繪, 「河北平原黑龍港地區古河道圖」, 『河北平原黑龍港地區〈古河道圖〉及〈說明書〉 1:200000』, 吉林省地理研究所印制, 1977.

衡水濱湖新區管委會, “衡水湖的起源與發展(형수호의 기원과 발전)” [http://www.hsbhxxq.gov.cn/col/col884/\(2024.02.22.접속\)](http://www.hsbhxxq.gov.cn/col/col884/(2024.02.22.접속))

詞典網, “清河郡” <https://www.cidianwang.com> (2024.02.26. 접속)

[Abstract]

Reconsidering the location of Bohai(渤海) Sea from Han(漢) to Tang(唐) Dynasties

Yi Ki-Hoon

(Archaeology as Interdisciplinary Science, Inha University)

Bohai(渤海) Sea, which was crossed by Han(漢) Dynasty in 109 BC when Han(漢) attacked Gojoseon(古朝鮮), and Bo'xie(勃澥) Sea which was crossed by Sui(隋) Dynasty in 612 AD when Sui(隋) attacked Goguryeo(高句麗) were the same sea, but they were not the current Bohai(渤海) Sea that is the northern sea of the current Yellow Sea(黃海). At that time, Bohai(渤海) Sea was like a huge inland lake in the lower part of the Yellow River. This fact can be confirmed by many records of Bohai flooding, Bohai's bank bursting, and Bohai's distance from Luoyang(雒陽). The fact that the ancient cities related to Bohai were located in the north and south around the Yellow River also corroborates it. Shiji(史記) records there were two seas which were close to Gojoseon(古朝鮮) during the Earlier Han(前漢) period, the Bohai Sea(渤海) and the North Sea(北海), and they were different seas which existed at the same time. Specifically, it is proved by this study that the ancient Bohai Sea(渤海) was in the southern Hebei Province(河北省) of China, and the current Bohai Sea was called as the North Sea(北海). Therefore, the Bohai Sea(渤海, 勃澥) that Han(漢) Dynasty and Sui(隋) Dynasty had crossed to attack Gojoseon and Goguryeo can not be the current Bohai Sea(past North Sea), but the ancient Bohai Sea, which was inland in the Central Plain(中原) of China. These fact proves that the current global scholars'

assignment of the capitals of Gojoseon and Goguryeo to Pyongyang(平壤), North Korea, is most likely in error. This is because if the Bohai Sea(渤海) was inland in the Central Plain(中原) of China, it means that the Han(漢) and Sui(隋) dynasties crossed the sea that was not the sea that they had to cross to attack Pyongyang(平壤), North Korea. In other words, it can be inferred that the capitals of Gojoseon and Goguryeo were in the northern part of present-day Hebei Province (near Beijing) of China, not i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Ancient Bohai Sea(渤海, 勃澥), Gojoseon(古朝鮮), Goguryeo(高句麗), Ancient North Sea(北海)

접수연월일 : 2024 년 3 월 31일

심사완료일 : 2024 년 4 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4 년 4 월 22일